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채재은**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¹⁾ 규모가 증대하면서 개도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OECD CRS D/B²⁾에 의하면, 2004년에 989억 달러이던 총 ODA 규모가 2013년에 1,867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교육 ODA도 9,286백만 달러에서 12,386백만 달러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 ODA 규모가 증가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난 십여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³⁾에 2개의 교육목표(보편

* 본 논문은 필자가 201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시장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논문의 취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임.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haeja@gachon.ac.kr

- 1) 공적 개발원조는 “OECD가 수원국 명단 제1부 국가(Part I countries)로 분류한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통상의 상업 금융 조건보다 유리한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개발원조 차관이나 무상원조 등”을 의미한다(정창호 2010: 3).
- 2) OECD CRS D/B는 OECD에서 개발한 D/B로, 각 수원국에 대한 ODA 사업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축적한 Creditor Reporting D/B(http://stats.oecd.org/index?Data_SetCode=CRS1#)이다.
- 3) MDGs는 8대 목표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 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④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⑤ 산모건강의 증진 ⑥ HIV/AIDS,

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가 포함되어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2015년까지 UN 회원국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로 인해 2000년대 초 이래 EFA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다자원조(multilateral aid) 외에 개별 공여국에 의한 양자원조(bilateral aid)에서도 교육분야 지원이 강조되어 왔다. 이외에도 교육은 그 자체가 개발협력의 핵심적인 기제여서 ODA 지원면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왔다. 교육을 통해 인간 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토대인 법,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World Bank 1994: 224; MOSF and KDI 2011: 81). 이에 따라 교육은 그동안 개발협력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확보해왔고, 그 결과 교육 ODA는 2013년 현재 전체 ODA의 6.6%를 차지하고 있다(OECD CRS D/B).

그러나 교육 ODA가 수원국이 개발협력을 통해서 충족하고 싶은 수요(이하 ‘교육개발협력 수요’라고 정의함)⁴⁾와 일치하는 기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다(Riddell 2009; Fredriksen 2010). 교육 ODA가 수원국의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지원의 우선순위’가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일치하느냐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수원국의 교육개발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ODA가 지원될 때 원조 효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은 2000년 MDGs 수립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원조 규모가 대대적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⑧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United Nations 2011: 6-58).

4) 교육개발협력 수요는 수원국이 교육 ODA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로, 수원국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모든 수요를 의미하는 ‘교육수요’와는 다르다. 양자는 중첩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원국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위해서 외부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분야(예: 국민 기초교육과정 개발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구분이 필요하다.

으로 확대되면서 핵심적인 원조 아젠다가 되어 왔다(서용석 2011). 이에 따라 2003년 제1차 원조 효과에 관한 고위관계자 포럼(Aid Effectiveness High Level Forum: HLF-1), 2005년 제2차 고위관계자 포럼, 2008년 제3차 고위관계자 포럼, 2011년 제4차 고위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중 원조효과성에 관한 원칙을 최초로 정립한 것은 2003년도 제1차 고위관계자 포럼으로, 이때 ①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 ② 수원국 개발전략 및 체제와의 일치(alignment) ③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harmonisation) ④ 성과중심 관리(results) ⑤ 상호책임성 추구(mutual accountability)의 5개 원칙이 제안되었다(정지원·이주영 2011). 하지만 이 원칙들은 교육 ODA를 지원할 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그 원인은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찾을 수 있다(Riddell 2009; Fredriksen 2010). 수원국측의 원인으로는 교육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원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주로 소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ODA 활용이 정해지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반면에, 공여국 측의 요인으로는 수원국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여국의 정책을 강제하거나, 공여국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 ODA가 수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하는 가는 교육원조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⁵⁾ 중에 지난 5년간(2009~13년) ODA 수원 비율(27,474백만 달러)이 40%로 가장 높으며,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을 연구대상으로서 선정하였다. 베트남에 지원되는 총

5)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기타 국가들은 모두 2012-2013년 OECD/DAC(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ODA 수원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2009~2013년 수원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달러): 베트남(27,474), 인도네시아(13,408), 미얀마(9,622), 필리핀(8,086), 캄보디아(4,608), 라오스(2,623), 태국(2,511), 말레이시아(509)(OECD CRS D/B).

ODA는 2013년 기준으로 총 6,433백만 달러로 전체 수원국의 3.4%를 차지한다(OECD CRS D/B). 또한 베트남은 과감한 사회개혁, 높은 성장잠재력, 우수한 ODA 수원체계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서 연구 가치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정혜영 2014: 199). 베트남은 1980년대 초 물가상승률이 평균 30-50%에 이르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1986년에 ‘도이머이(Đổi Mới)’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통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과감히 전환하면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최저 빈곤국에서 벗어나 1990년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Asia Development Bank et al. 2012: 12). 이러한 놀라운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에 대한 해외원조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6). 베트남에 가장 많은 ODA를 지원한 공여주체(donors)는 2009~13년 기준으로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세계은행 소속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한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순이다(OECD CRS D/B). 분야별로는 2009~13년간 교육, 보건, 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회구조 및 관련 서비스’(30.5%)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다중섹터/범분야 분야(12.4%), 생산 분야(8.3%), 물자원조/일반 프로그램 지원(4.6%) 등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ODA를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국(UNDP)에서 개발한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값이 베트남의 경우 2000~11년 동안 12.3%나 증가하였다(OECD 2013: 3).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듯하다. 유엔개발계획국

(UNDP)의 『2014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베트남의 HDI 지수는 121위로, 인도네시아(108위), 태국(89위) 보다 낮은 편이다. 베트남의 평균 교육연한도 5.5년으로 라오스(4.6년), 미얀마(4.0년) 보다는 길지만, 태국(7.3년), 인도네시아(7.5년), 캄보디아(5.8년) 보다는 짧은 편이다(UNDP 2014).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베트남에 교육원조가 많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ODA 공급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베트남이 어떠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충족하는 데 교육 ODA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였고, 특히 ‘교육원조’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이다.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지역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왔으나,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⁶⁾. 최근에 ODA 사업이 확대되면서 베트남과의 교육개발협력을 다룬 정책연구들(유성상 2007; 이석희 외 2009; 이성준 외 2009; 박인원 외 2010; 김철희 외 2011)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트남 교육과 ODA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색한 국내 학술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교육 ODA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둘째, 다자원조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셋째, 양자원

6) 2001~15년 2월 15일 현재 RISS 검색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에 관한 국내 학술논문은 1,285건이고, 이 중 베트남 교육을 다룬 연구는 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 교육과 관련된 논문 대부분은 교육의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이고, 베트남과 한국간의 교육협력을 다룬 논문은 3편 ① “독일, 일본, 한국의 베트남 교육개발협력 정책 비교 연구”(우명숙·채재은 2014) ② “한국-베트남 대학교육협력모델 연구”(이강우 2014) ③ “한국·베트남 수교이후 양국의 교육문화협력 실적”(김기태 2003)에 불과하다.

조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넷째,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다자원조와 양자원조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베트남 사례는 교육 ODA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베트남 교육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교육산업분야 통계, 국가발전계획과 교육발전계획, 선행연구, 베트남 현지 면담 조사(2013년 7월 16-19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OECD CRS D/B』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와 개별 공여국들의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 실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사례가 교육 ODA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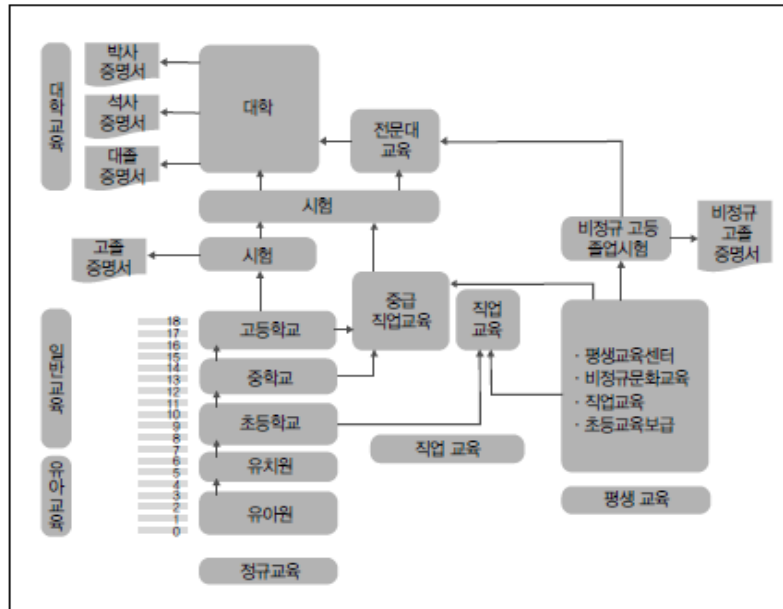
II. 베트남 교육의 현 주소

베트남 교육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교육의 제도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교육법(Education Law)에 잘 드러난다.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베트남 교육의 특성을 “베트남 교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토대로 민중적, 국가적, 자연적, 과학적, 현대적 특성을 갖는 사회주의 성격을 갖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IRED 홈페이지). 이러한 목표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차별화된 것으로서 교육도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국가 기능의 한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에 ‘도이머이(Đoi Moi)’ 이후 베트남의 경제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포용하면서 실제 교육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즉 학별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면서 교육의 사회적 역할 못지 않게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향상시키는 도구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Mok 2008).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프랑스형 학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학제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993년에 <그림 1>과 같이 5년(초등학교)-4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11/12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정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교육기관(유아원 및 유치원 포함)은 13,172개, 초등학교는 15,337개, 기초교육기관은 554개가 있다. 중학교는 10,243개교가 있고, 중등교육기관은 319개교, 고등학교는 2,350개교, 기술직업교육기관은 295개교, 전문대학 215개교, 4년제 대학 204개교가 있다.

<그림 1> 베트남 학제(2013)



출처: 2013년 7월 17일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로부터 획득한 내부 자료를 필자가 번역함.

<표 1> 베트남의 교육현황 (2011/12)

(단위: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유아교육(만 5세 이하)	13,172	3,873,445	229,724
초등학교 과정	15,337	7,100,950	366,045
기초과정	554		
중학교 과정	10,243	4,926,401	311,970
중등과정	319		
고등학교 과정	2,350	2,755,210	150,133
기술직업교육	295	623,050	19,956
전문대학	215	756,292	24,437
4년제 대학	204	1,448,021	59,672

주: 고등교육기관 중에는 3년제, 5년제 대학도 있으나 주류인 전문대와 4년제 중심으로 제시함.

출처: MOET(2012a: 1-6)을 활용하여 작성.

베트남의 초등교육 과정은 5년의 단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등교육 과정은 인문계 고등학교과정(3년), 중등직업기술 교육과정(3~4년), 장기 직업훈련과정(1~3년), 또는 단기 직업훈련과정(1년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인문계 과정과 중등직업기술교육 과정은 교육훈련부(MOET: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담당하고, 기타 직업훈련과정은 노동보훈사회부(MOLISA: Ministry of Labors-Invalid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한다. MOLISA는 초급직업훈련, 중급직업훈련, 그리고 고등직업훈련을 담당하며, MOET는 기술(전문)고등학교와 기술(전문)대학 등을 관장한다(김철희 외 2011: 86).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법(Law on Vocational Training)에 의해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단계별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11년 현재 중앙부처 운영기관은 총 124개이고, 지방공공기관 운영기관은 943개이고, 민간기관은 224개이다. 이

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업교육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직업훈련 분야의 가장 큰 도전은 베트남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2011~20 사회경제개발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숙련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이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등학교 졸업자의 약 30%만이 전문직업학교와 직업교육기관으로 진학하고 있는 데, 이는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고 화이트 칼라 직업을 선호하는 베트남의 사회문화와 관련이 있다(OECD and LEED 2012: 14).

<표 2> 운영주체별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현황 (2011)

(단위: 개소)

구분	중앙부처 운영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방민간기관 운영		
	직업기술대학	직업중등학교	직업교육센터	직업기술대학	직업중등학교	직업교육센터	직업기술대학	직업중등학교	직업교육센터
소계	61	61	2	60	176	707	15	69	140
계	124			943			224		

출처: NIVT(2012: 32).

고등교육 분야도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급성장하는 교육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고등교육 등록률도 상승되어 2010년 현재 약 10.1%에 이르고 있다(UIS 홈페이지). 이와 같이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는 취업 경쟁력 확보와 학력간 임금 격차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중시하는 베트남의 사회문화 전통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정연식·배양수 2012: 112).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공계 분야에 비해 산업인력 양성면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과학, 교육학 위주로 고등교육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전체 고등교육 등록생 중 사회과학 분야는 32.8%이고 교육학 분

야는 27.5%인 반면에, 이공계 분야는 16.8%에 불과하다(OECD and LEED 2012: 24).

Ⅲ.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만한 교육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교육개발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들의 ODA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야와 그 우선순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교육·산업 통계자료로서 베트남의 EFA 및 MDGs의 달성도, 기타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에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셋째,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이들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로, 2013년 7월 16-19일간 하노이에서 실시한 베트남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면적인 수요 분석은 각각의 분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베트남의 교육·산업 통계 분석

<표 3>에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EFA의 목표 달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및 문해교육과 관련된 주요 목표(등록률)가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EFA의 목표 시점인 2015년까지 모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베트남의 연도별 EFA 달성 현황 및 목표

구 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아교육·보육]							
보육원 총 등록비율 (공립+비공립)	14%	16%	17%	19%	20%	21%	22%
유치원 총 등록비율 (공립+비공립)	69%	69%	69%	69%	69%	69%	69%
등록비율(5세)	91%	99%	103%	107%	111%	115%	119%
학생/교사비율 (공립)	18	17	16	16	15	15	14
학생등록(공립)	17,170,520	1,842,114	1,906,177	1,973,591	2,045,466	2,121,825	2,200,398
교사의 수(공립)	94,945	108,783	116,646	125,319	134,856	145,254	156,408
교실 수(공립)	71,235	66,806	69,797	72,993	76,441	80,148	84,139
[초등교육]							
총 등록비율 (공립+비공립)	97%	100%	100%	100%	100%	100%	101%
총 학생수용률 (공립+비공립)	99%	99%	99%	99%	100%	100%	100%
승진비율(공립)	96%	97%	97%	98%	98%	99%	99%
학생/교사비율 (공립)	20	21	22	23	23	24	25
학생등록(공립)	6,769,216	6,856,229	6,818,943	6,819,152	6,822,565	6,835,720	6,850,195
교사의 수(공립)	346,085	326,148	313,092	302,331	292,186	282,879	274,008
교실 수(공립)	244,596	241,285	237,074	234,375	231,967	230,054	228,340
[중학교]							
등록비율 (공립+비공립)	99%	100%	100%	100%	100%	101%	101%

승진비율(공립)	93%	94%	94%	95%	95%	96%	96%
학생/교사비율 (공립)	18	18	18	19	19	19	19
총 등록비율 (공립+비공립)	88%	85%	87%	88%	91%	94%	95%
학생등록(공립)	5,439,999	4,945,342	4,920,677	4,918,885	5,001,153	5,104,383	5,137,274
교사수(공립)	308,406	273,039	267,999	264,204	254,840	266,420	264,202
교실수(공립)	126,274	117,012	117,558	118,662	121,830	125,571	127,634
실험실수(공립)	17,736	16,448	16,531	16,693	17,146	17,679	17,977
[문해력과 비형식교육]							
성인 문맹률	98%	98%	99%	99%	99%	100%	100%
비형식교육 학습자의 수	12,298,765	12,537,036	12,658,276	12,781,042	12,902,865	13,021,284	13,139,029
계속교육 프로그램 수	9,551	9,982	10,197	10,413	10,628	10,844	11,059

출처: MOET(2012b: 44).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교육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등록률은 약 50%에 머물고 있고, 고등교육 진학률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베트남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0.1%(2010년)에 불과한데, 이는 태국(29%), 필리핀(19.3%), 인도네시아(13.4%) 보다 낮은 편이다(WDI database 홈페이지). 이외에도 베트남이 지향하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숙련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핵심발전 전략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한 베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에 따라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숙련인력 부족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2009년 현재 약 4천9백만명의 노동력 중 14.9%(7천 3백만명)만이 기초자격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표 4> 직업교육훈련 자격별 베트남의 노동력 수준 (20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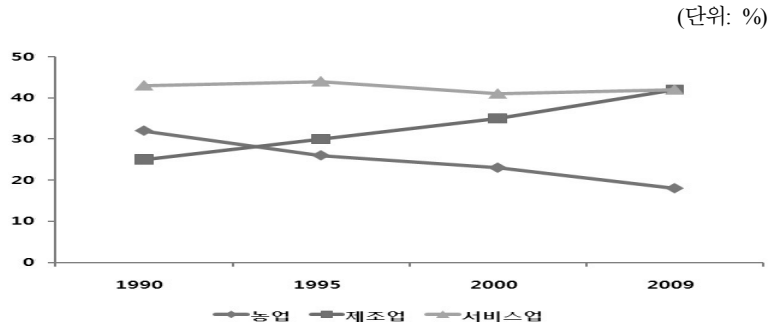
지역	계	기초자격수준	중등자격수준	전문대학 수준	대학 이상 수준
전국	14.9	3.0	5.1	1.8	5.0
도시	31.6	5.7	8.9	3.1	13.9
농촌	8.8	2.0	3.7	1.4	1.7

출처: GSO(2010: 103).

이와 같은 낮은 노동력 수준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지수 『(CIPI: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⁷⁾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간한 『2012/13 산업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CIPI 순위는 54위로 인도네시아(38위), 태국(23위) 보다 낮은 편이다(UNIDO 2013: 48). 이는 베트남의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제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1990~2009년 사이에 농업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제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 산업경쟁력 지수(CIPI)는 ‘제조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로, CIP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 및 수출능력, 기술의 발전 정도, 세계 생산 및 무역에 있어서의 영향력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함(한국개발연구원 2013: 15).

<그림 2> 베트남의 GDP 구조(1990~2009)



출처: 이홍식, 김형주(2010: 91).

2. 베트남 정부계획 분석

베트남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발전계획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정치 사회의 안정, 생활수준의 개선, 국제지위 향상 등에 기반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20).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중의 하나가 ‘국가 교육의 종합적인 혁신을 통한 고급인력 육성’으로, 이를 위한 목표치로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숙련인력 70% 확보, 직업훈련 이수 비율 55% 달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SEDS 2011-2020의 하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1-2015)』에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 7~8% 성장을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 2,100달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직업훈련을 경제 분야, 자원·환경 분야, 사회 분야와 함께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목표치를 제시하

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직업훈련 목표로 2015년까지 숙련인구 비율을 55%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SEDP(2011-2015) 부문별 주요 성과목표

구분	항목	'06-'10목표	'06-'10성과	'11-'15목표
경제 지표	① GDP 성장률(%)	7.5-8.0	6.9	7-8%
	② 1인당 GDP(USD)	1,100('10)	1,220	2,100
	③ 산업구조비율(GDP내, %)			
	- 농림수산 분야	15-16	19.9	18-19
	- 제조·건설 분야	43-44	40.3	40-41
	- 서비스 분야	40-41	39.8	40-41
	④ 연간 수출 증가율(%)	16	13.8	12
사회 개발 지표	⑤ 고용창출(백만명)	8.0	8.1	8.0
	⑥ 숙련인력 비율(%)	40	40	55
	⑦ 빈곤가구(%)	10-11('10)	10	연간 2% 감소
	⑧ 인구증가율(%)	1.14	1.14	15 이하
환경 지표	⑨ 청정수 공급율(%)	75(농촌)- 95(도시)	83(농촌)- 85(도시)	96(농촌)- 98(도시)
	⑩ 산림녹화율(%)	42-43	40	42.5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22).

이상과 같이 SEDS 2011-2020 및 SEDP 2011-2015에서는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분야 발전계획(2011-2020 인적자원개발계획, 교육발전계획, 직업훈련종합계획)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계획에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 발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베트남의 교육훈련 발전계획 비교

계획	2011-2020 인적자원개발계획	2011-2020 교육발전계획	2011-2020 직업훈련종합계획
주요 내용	훈련인력 비율 ('10년 40%→20년 70%) 산업분야별 목표 - 농림수산: 15.5%→50% - 산업분야: 79%→92% - 건설분야: 41%→56% - 서비스분야: 67%→88%	취학을 개선 (2020년) - 초등학교: 99% - 중학교 95% - 고등학교: 80% - 장애학생: 70% 학교등 록 산업인력 양성 일반교육의 표준화, 현대화, 사회화, 통합화 추구 도덕교육, 연성기술교 육, 창의력, 실천력 강화	훈련기회 확대 - 훈련비율 55%(2015년)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 국제수준 커리큘럼 개발 - 국가기능검정제도 도입 - 직업교육 소외계층 지원

<표 6>에 있는 세 계획 모두 산업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2011-2020 인적자원개발계획과 2011-2020 직업훈련종합계획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인 SEDS 2011-2020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이수율’을 확대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초중등교육의 개혁방안을 주로 제시한 2011-2020 교육발전계획은 초중등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그리고 장애아동 등 소외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주로 제시한 차이점이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최근에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이 <표 7>과 같이 여러 편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베트남의 교육 개발협력 수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베트남과의 교육협력방안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비교

구분	초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기타
한·베트남 중장기 교육협력방안(이성준 외 2009)	교육의 질 개선 교사훈련 확대	-	교육의 질 개선	교육시설 의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개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협력 수요분석 및 과제(이석희 외 2009)	(초등)교사양성, 시설건축 및 개보수 사업 (중등)교육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	시설건립 및 개선 사업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해외연수 기회 의 확대 외국대학교의 공동연구 확대 대학생의 해외 유학 확대	-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박인원 외 2010)	-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 교육행정 및 정책개선 교사재교육 등	교육행정 및 정책 교사재교육 교육시설 건립 봉사단 파견 등	-
한국의 베트남 CPS 전략(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	직업훈련 장기 연수·학위과정 개발 직업훈련제도 개선 교수방법 개선 등 역량강화 등	-	-

우선 『한·베트남 중장기 교육협력 방안』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 초중등교사 훈련,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체제 전환,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로서 제시하고 있다(이성준 외 2009: 57-60). 그리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협력 수요분석 및 과제』에서는 교육영역별로 베트남의 개발협력 수요를 제시하고 있다(이석희 외 2009: 195-197). 동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사양성 지원, 시설건축 및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고,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설건축 및 개보

수사업,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해외연수 기회,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대학생의 해외유학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설 건립 및 재보수, 교육행정 및 정책 개선, 교사재교육의 순으로 개발협력 수요가 크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및 정책, 교사재교육,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 전문봉사단 파견의 순으로 개발협력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원 외 2010: 139-140). 마지막으로 『한국의 베트남 CPS 전략』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의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연간 약 9천명 수준의 숙련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35). 이를 위해 직업훈련원 설립, 교육기자재 공급, 직업교육훈련 장기연수·학위과정, 직업교육훈련제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교육의 전 분야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베트남이 EFA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인해 기초교육(유치원, 초등교육 및 중학교 교육)의 수준은 비교적 향상된 반면에, 산업화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베트남의 현지 면담 자료 분석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출장(2013년 7월 16-20일)을 통해서 교육 및 직

업교육훈련, ODA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을 면담하였다. 면담은 면담자의 근무기관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지는 기관 방문 전에 미리 면담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각 기관별 질문은 공통 질문(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 교육 ODA 수월 현황과 이슈, 주요 공여국의 교육 ODA 지원 전략 등)과 기관별 질문(해당 분야의 교육 ODA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 분야별 주요 공여국의 교육 ODA 지원 전략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8> 베트남 면담자 현황

면담 기관	부서	면담자	면담 일시
교육훈련부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2명(과장, 부과장)	7월 17일 (09:00-10:30)
투자기획부	Asia, America and Economic Integration Division	1명(과장)	7월 17일 (11:00-12:00)
노동부	ODA Vocational Training Projects management Unit, General Department of Vocational Training	3명(과장 및 직원 2명)	7월 17일 (14:00-15:30)
베트남 사회과학원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1명(비교교육 전문가)	7월 17일 (17:00-18:00)
Phucyen college of industry	Dept. of Scientific Management	2명(학과장, 직원)	7월 19일 (09:00-11:00)
Hanoi Industrial Vocational College	-	7명(과장 및 교수 6명)	7월 19일 (14:00-16:00)

주: 면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성명 표기는 생략함.

면담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베트남의 주요 교육개발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로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였다. 교육훈련부(MOET)의 국제협력 부국장의 경우 산업국가로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간 균형 발전’이 『베트남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산간 지방, 낙후된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직업훈련정책 담당자들과 투자기획부의 교육 ODA 담당자도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과 하부계획인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의 핵심전략이 산업인력 양성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고등교육 ODA’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고등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원을 2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직업훈련정책 담당자들에 의하면, 베트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등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처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고등교육 단계로 격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석박사 인력을 확대하려는 베트남 정부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부(MOET)의 국제협력부국장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학 설립을 확대하고 있어 교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프랑스 등은 베트남 대학원생들이 자국에서 고등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호주와 독일은 베트남 현지에 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는 투자기획부 관계자의 면담결과나 Hanoi Industry Vocational College과 Phuc Yen College of Industry 관계자 면담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진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기술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Hanoi Industry Vocational College 관계자들은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

국 대학에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개발협력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ODA를 활용하여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기초교육 기회는 대폭적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질 문제는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특히 지역간, 민족간 격차로 인해서 확대되는 기초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EFA 실현과 MDGs 실현 차원에서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개발협력 수요의 종합 분석

앞서 제시한 교육 및 산업 통계, 베트남 정부계획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추정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제 영역 중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크다. 이는 베트남이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GDP가 3,200달러인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 및 산업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숙련인구의 비율이 2009년 현재 49.2백만명의 노동력 중 약 14.9%(7천3백만명)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숙련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미흡한 ‘고등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 분석표

구분	초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교육산업통계 분석	중등교육기회 확대	직업자격 소지비율 (14.9%: '09) 산업·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진학률 10.1%('10)	
베트남정부계획	2011-2020/ 2011-2015 발전계획	(언급 없음) 숙련인구 비중 - 2015: 55% - 2020: 70%	(언급 없음)	
	인적자원개발 발계획	" 훈련인력 -40%(10년)→70%(20년)	"	
	교육발전 계획	순취학을 제고 - 초등학교: 99% - 중학교: 95% - 고등학교: 80% 교육의 질적 제고	산업인력 양성	"
	직업훈련 종합계획	(언급 없음)	직업훈련: 55%('15) 직업훈련의 질 제고 - 국제수준 커리큘럼 개발 - 국가기능검정제도 등	"
선행연구	학교시설의 확대 및 교육인프라 개선(이성준 외 2009; 이석희 외 2009)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이성준 외 2009) 교사훈련 확대(이성준 외 2009) 교육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이석희 외 2009)	시설 건축 및 교육 인프라 개선(이석희 외 2009; 박인원 외 20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산학연계 활성화, 장단기 연수 및 학위과정 개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박인원 외 2010) 교육정보화(이석희 외 2009) 직업훈련제도 및 교수법 개선(박인원 외 20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성준 외 2009) 해외연수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생 교류 확대(이석희 외 2009) 교수훈련 확대(박인원 외 2010) 고등교육행정 및 정책 개선, 대학시설 건립 및 재보수, 전문봉사단 파견(박인원 외 2010)	
현장수요 조사	지역간 초중등교육 격차 해소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한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전자산업 관련 직업훈련 확대 직업교육훈련생 및 교사들의 한국 연수 확대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베트남 대학생들의 외국 유학 지원 대학 교수 요원의 한국 연수 확대	

2010년 현재 고등교육 진학률은 10.1%에 불과하나, 베트남의 산업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그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만명의 석박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원들을 2년제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2년제 대학을 다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다음으로 ‘중등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개발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여년간 유네스코 EFA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달성된 반면에, 중등교육의 보편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기중등교육의 경우 등록률이 50% 정도여서 학교 건립 확대 등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의 경우 이미 양적 목표는 달성했으나, 『2011-2020 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창의성 및 혁신성, 질적 수준, 형평성 강화 등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IV.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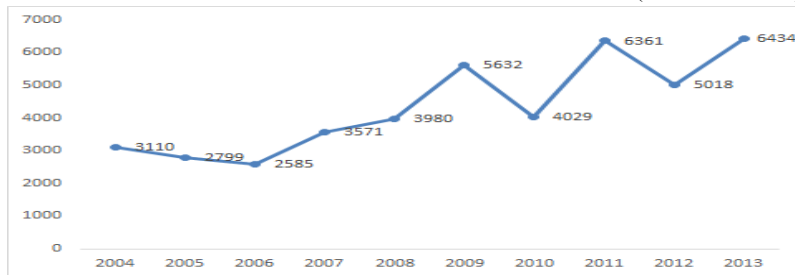
1. 베트남 교육 ODA 총량 분석

베트남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동유럽과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소수의 국제기구들로부터 ODA를 지원받았으나, 1986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ODA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정혜영 2014: 198). 특히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ODA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우수한 수원체계 등은 해외 원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베트남에 대한 ODA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에 지원되는 총 ODA는 2013년 기준으로 총 6,433백만 달러로 전체 수원국의 3.4%, 아시아 국가의 9.7%를 차지하고 있다(OECD CRS D/B).

<그림 3>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2004-12)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국제사회가 2009년부터 2013년간 베트남에 지원한 ODA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교육, 보건, 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회구조 및 서비스’에 총 8378.18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으로 다중섹터/범분야 이슈(3404.08백만 달러), 생산 분야(2271.47백만 달러), 물자원조/일반 프로그램 지원(1277.31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이 중 ‘교육 분야’에는 2009~13년간 1,833.83백만 달러가 지원되어 전체 베트남 ODA의 6.8%를 차지한다(OECD CRS D/B).

<표 10> 원조영역별 베트남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부문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사회구조 및 서비스	1853.02	1406.14	1851.02	1362.73	1905.27	8378.18
경제구조 및 서비스	2025.01	1365.45	3125.05	2053.97	3183.62	11753.1
생산분야	570.25	370.00	358.81	530.15	442.26	2271.47
다중섹터/범분야 이슈	405.08	530.06	959.71	866.66	642.57	3404.08
물자원조/일반 프로그램	709.67	236.34	43.99	55.23	232.08	1277.31
부채관련 지원	4.01	0.24	0.18	-	-	4.43
인도적 지원	14.29	98.81	10.46	136.38	11.35	271.29
관리비용	6.71	9.71	7.02	8.82	8.51	40.77
난민 지원	-	-	-	0.67	0.94	1.61
기타	43.32	12.58	4.43	2.97	7.28	70.58
계	5631.36	4029.33	6360.67	5017.58	6433.88	27472.82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27).

베트남에 대한 교육원조를 재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2005~13년간 베트남에 지원된 교육원조(3112.44백만 달러) 중에 유상원조는 54.2%(1,686.912백만 달러)로 45.8%(1,425.54백만 달러)인 무상원조 보다 많은 편이다. 원조 금액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무상 원조 모두 변동폭이 큰 편인데, 이는 베트남의 경제 여건과 공여국의 상황 등에 따라 교육원조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 교육원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무상	146.79 (54.2)	147.75 (71.4)	148.33 (50.2)	136.90 (68.0)	182.95 (33.4)	137.52 (30.3)	151.81 (71.6)	128.23 (51.3)	132.67 (36.0)	1425.54 (45.8)
유상	123.79 (45.8)	59.24 (28.6)	147.20 (49.8)	64.42 (32.0)	365.26 (66.6)	316.90 (69.7)	60.30 (28.4)	121.49 (48.7)	235.92 (64.0)	1686.91 (54.2)
계	270.58	206.99	295.52	201.32	548.22	454.42	212.11	249.72	368.59	3112.44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베트남에 지원된 교육원조 현황을 원조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2011-2013년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다자원조’가 37.2%이고, 개별 공여국이 베트남에 제공하는 ‘양자원조’가 62.8%이다. 다자원조 중에는 기초교육이 60.5%로 가장 높은 반면에, 양자원조의 경우 중등이후교육이 66.9%로 가장 높다. 이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베트남의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 실현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 공여국들은 ‘장학생 초청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 학생들과 교사, 교수 등이 자국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주로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별로는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이 4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초교육(25.3%), 중등교육(14.8%), 교육일반(12.4%)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육 개발협력 수요의 우선순위(<표 9> 참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12> 교육영역별 베트남 원조 현황(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다자원조		양자원조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초교육	187.0	60.5	23.1	4.4	210.1	25.3
중등교육	4.0	1.3	119.4	22.9	123.4	14.8
중등이후교육	45.0	14.6	349.2	66.9	394.2	47.4
교육일반	72.9	23.6	30.5	5.8	103.4	12.4
계	308.9	100.0	522.2	100.0	831.1	10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반면에 세부분야별로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 현황을 보여주는 <표 13>을 살펴보면, 장학금(242.35백만 달러), 직업교육훈련(116.95백만 달러), 고등교육 기타 지원(78.75백만 달러), 유아교육(106.79백

만 달러), 초등·중학교육(101.96백만 달러), 교육정책 및 경영 관리(58.59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개별 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성 ODA 중에는 ‘직업교육훈련’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내의 대학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기타 고등교육 지원’이 비율이 높아서 우선순위면에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13> 교육세부 영역별 베트남 원조 현황(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양자	다자	계	
기초교육	초등·중학교육	14.94	87.02	101.96	
	청소년·성인의 기초역량 강화	1.38	0.03	1.41	
	유아교육	6.79	100.0	106.79	
	소계	23.11	187.05	210.16	
중등교육	중등교육	2.5	4.0	6.5	
	직업교육훈련	116.95	0	116.95	
	소계	119.45	4	123.45	
중등 이후 교육	고등교육	장학금	242.35	0	242.35
		기타	78.75	45.00	123.75
		소계	321.10	45.00	366.1
	고급기술·관리 훈련	28.08	0	28.08	
	소계	349.18	45	394.18	
교육 일반	교육정책 및 경영 관리	12.18	46.41	58.59	
	교육시설 및 훈련	13.37	26.51	39.88	
	교사훈련	4.83	0	4.83	
	교육 연구	0.11	0	0.11	
	소계	30.49	72.92	103.41	
계		522.23	308.97	831.2	

출처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2. 베트남 교육에 대한 다자원조 분석

베트남에 대한 다자기구의 교육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2005~13년간 IDA(세계은행 소속)와 ADB가 주로 베트남에 교육 ODA를 지원하였다. 이는 세계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6』에서 중점지원 분야로서 ‘시장제도 개선, 인프라 강화’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orld Bank 2011: 14). ADB도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2012-2015』에서 6개 핵심 지원 분야(농업과 천연자원, 교육, 에너지, 재정, 교통, 상수도 및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의 하나로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ADB 2012: 5-6).

<표 14> 다자기구의 베트남 교육 ODA 지원 실적

(단위: US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중 (%)
ADB	53.59	-	36.06	49.42	58.76	70	20	90	0.8	378.63	28.9
EU	19.89	-	-	-	-	-	-	-	-	19.89	1.5
IDA	70.2	10	73.4	12	297.6	246.9	24	-	173	907.1	69.2
IFAD	-	2.66	-	-	-	-	-	-	-	2.66	0.2
UNDP	0.02	-	-	-	-	-	-	-	-	0.02	0.0
UNICEF	0.57	0.24	0.35	0.25	0.12	0.08	0.4	0.45	0.33	2.79	0.2
계	144.27	12.9	109.81	61.67	356.48	316.98	44.4	90.45	174.13	1311.09	10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0).

교육영역별로 베트남에 대한 다자원조 실적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기초교육에 60.5%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으로 교육일반(23.6%), 중등이후교육(14.6%), 중등교육(1.3%)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과 국제기구가 베트남의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 실현을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초등·중학교육에 87.02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교육 정책 및 경영 관리(46.41백만 달러),’ 고등교육 기타 지원(45백만 달러), 교육시설 및 훈련(26.51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이 다자원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MDGs와 EFA)를 베트남이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유아교육,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개별 학습자 지원 성격을 가진 ‘장학금’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별로 살펴보면, 주로 세계은행 소속의 IDA와 ADB가 베트남에 교육 ODA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개발협력기구인 UNICEF도 베트남의 기초교육과 교육일반 영역을 지원하지만, 지원액은 IDA와 ADB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편이다.

<표 15> 교육영역별 對베트남 다자원조 실적

(단위: US 백만 달러)

	구분	다자	비고
기초 교육	초등·중학교육	87.02	ADB(86.8), UNICEF(0.22) 등
	청소년·성인의 기초역량 강화	0.03	UNICEF(0.03)
	유아교육	100.0	IDA(100.0)
	소계	187.05(60.5%)	
중등 교육	중등교육	4.0	ADB(4.0)
	직업교육훈련	-	
	소계	4(1.3%)	
중등 이후 교육	고등교육	장학금	-
		기타	45.00
교육	고급기술·관리 훈련	-	
	소계	45(14.6%)	

교육 일반	교육정책 및 경영 관리	46.41	IDA(45.5), UNDP(0.91)
	교육시설 및 훈련	26.51	IDA(26.5), UNICEF(0.01)
	교사훈련	-	
	교육 연구	-	
	소계	72.92 (23.6%)	
계		308.97 (10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0).

최근(2011~13년)에 이루어진 베트남 교육과 관련한 주요 다자원 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DA에서는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백만 달러를 지원한 『베트남 취학준비 프로젝트(Vietnam school readiness promotion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중일반 출석률을 높이고, 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지원하여 교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협력과 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orld Bank 홈페이지). 이외에도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IDA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승인된 『베트남 교육 글로벌 파트너십(Vietnam: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Vietnam Escuela Nueva project)』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20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84.6백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교재개발, 교사훈련과 교재 제공, 학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DB의 경우 가장 낙후된 베트남 지역의 중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105백만 달러(19.2%)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최고 취약지역 대상 제2차 중학교 교육 프로젝트(lower secondary education for the most

disadvantaged areas project)』를 들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소수민족과 취약집단의 중학교 교육을 개선하여 고용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00천 달러 규모의 기술협력 원조를 통해 전문가 자문, 기자재 제공, 워크숍 개최, 설문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ADB 2013: 1).

3. 베트남 교육에 대한 양자원조 분석

베트남 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공여국들이 지원한 양자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OECD/DAC 회원국에 의해서 총 1,486.9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는 연도별로 평균 165.2백만 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지난 십년간 베트남의 교육발전에 ODA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별로 살펴보면 몇몇 국가만이 집중적으로 베트남에 교육 ODA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가 26.0%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독일(20.2%), 일본(16.3%), 한국(10.8%)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과 공여국간의 역사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1883년부터 1954년까지 자국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교육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김종섭 외 2012: 298). 그리고 프랑스 다음으로 베트남을 많이 지원하는 ‘독일’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⁸⁾으로 인해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은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

8)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황폐화된 유럽 동맹국을 지원한 개발원조계획으로서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라고도 불리운다.

으로 교육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종섭 외 2012: 332). 일본도 전쟁 범죄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정혜영 2014: 211). 일본은 실제 베트남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한 적도 있으나 1973년에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일본은 2013년 현재 베트남에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도 베트남의 개발협력 강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에 한국군 31만명을 파병한 역사가 있으며,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로서 한국 전체 ODA 중 2000~01년 10.6%, 2010~11년 9.6%를 각각 지원하였다(OECD CRS D/B). 베트남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고등교육(유학생 초청 등)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표 16> 베트남 교육에 대한 양자원조 현황

(단위: US 백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비중 (%)
호주	0	14.2	15.95	15.52	37.04	0.04	1.03	0.21	0.04	84.03	5.7
오스트리아	0.35	0.53	9.59	9.46	0.87	0.81	0.94	8.34	5.91	36.8	2.5
벨기에	4.93	12.12	3.88	5.94	3.58	5.42	2.76	8.04	1.79	48.46	3.3
캐나다	13.2	0.18	2.92	0.19	3.5	0.07	20.65	0.03	0.04	40.78	2.7
체코	0	0	0	0	0	0	0.18	0.17	0.18	0.53	0.0
덴마크	0.67	0.27	0.09	0	0.16	0.53	0	0.01	0	1.73	0.1
핀란드	0	0.06	0	0	0	0.33	0	0	0.28	0.67	0.0
프랑스	27.94	46.72	44.9	39.44	39.97	37.86	41.54	69.43	39.21	387.01	26.0
독일	3.27	29.23	29.42	32.85	37.18	32.51	54.17	30.58	51.18	300.39	20.2
그리스	0.01	0	0.02	0.03	0.01	0	0	0	0	0.07	0.0
아이슬란드	0	0	0	0	0	0	0	0	0	0	0.0
아일랜드	0.22	0.36	0.28	0.33	0.26	0.51	0.29	1.1	1.53	4.88	0.3

이탈리아	0	0	0.51	0.37	0.64	1.13	1.79	0.94	0.13	5.51	0.4
일본	21.35	64.51	23.08	18.37	14.27	25.68	25.43	29.63	20.53	242.85	16.3
한국	0	3.53	47.55	5.69	12.46	15.64	8.7	3.67	63.87	161.11	10.8
룩셈부르크	0.68	0.82	0.54	2.04	2.38	2.6	1.11	1.53	1.68	13.38	0.9
네덜란드	5.28	9.97	0	0	0	0	0	0	0	15.25	1.0
뉴질랜드	4.1	3.81	2.27	0.13	0.31	8.88	5.95	0.65	2.67	28.77	1.9
노르웨이	5.08	4.86	3.54	2.47	0.17	0.22	0.24	0.25	0.08	16.91	1.1
폴란드	0	0	0	0	0	0	0	0	0.23	0.23	0.0
포르투갈	0.01	0.01	0	0	0.01	0	0.03	0.02	0.03	0.11	0.0
슬로바키아	0	0	0	0	0	0	0	0	0.01	0.01	0.0
슬로베니아	0	0	0	0	0	0	0	0	0	0	0.0
스페인	0.28	2.75	1	5.79	0.6	0.55	0/28	0	0	10.97	0.7
스웨덴	0.48	0	0	0	0	0.74	0.55	0.04	0.11	1.92	0.1
스위스	0.3	0.18	0.17	0.17	0.15	0.1	0.08	0.19	0.19	1.53	0.1
영국	28.17	0	0	0.86	38.18	2.94	1.64	2.59	3.87	78.25	5.3
미국	0	0	0	0	0	0.89	0.65	1.85	1.36	4.75	0.3
계	116.32	194.11	185.71	139.65	191.74	137.45	167.73	159.27	194.92	1486.9	10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교육영역별로 양자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중등이 후교육’에 전체 양자원조의 66.9%(349.18백만 달러)가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등교육(22.9%), 교육일반(5.8%), 기초교육(4.4%)의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장학금(242.35백만 달러)을 제외하고 개별 사업 중에는 직업교육훈련(116.95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고등교육지원(78.75백만 달러)’, 고급기술·관리 훈련(28.08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9>에 제시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자원조 보다 양자원조가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의 일치도가 높은 이유는 국제기구들과 달리 개별 공여국들은 베트남 정부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17> 교육영역별 베트남 교육에 대한 양자원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세부 분야	양자	비고	
기초 교육	초등·중학교육	14.94	벨기에(6.7), 일본(4.29), 프랑스(1.87) 등	
	청소년·성인의 기초역량 강화	1.38	한국(0.54), 프랑스(0.29), 호주(0.26), 영국(0.16) 등	
	유아교육	6.79	뉴질랜드(5.95), 프랑스(1.0), 룩셈부르크 (0.39), 한국(0.35) 등	
	소계	23.11 (4.4%)		
중등 교육	중등교육	2.5	프랑스(1.48), 일본(0.24), 영국(0.77) 등	
	직업교육훈련	116.95	독일(49.99), 프랑스(32.32), 한국(11.33), 오스트리아(12.6), 일본(5.35) 등	
	소계	119.45(22.9%)		
중등 이후 교육	고등교육	장학금	242.35	프랑스(105.74), 독일(74.13), 일본(47.99), 한국(2.88) 등
		기타	78.75	한국(51.3), 캐나다(20.2) 등
	고급기술·관리 훈련	28.08	캐나다(20.22), 한국(4.37), 영국(2.32) 등	
	소계	349.18(66.9%)		
교육 일반	교육정책 및 경영 관리	12.18	일본(5.51), 영국(2.86), 프랑스(2.46), 한국(0.52) 등	
	교육시설 및 훈련	13.37	독일(5.6), 한국(2.84), 일본(2.32), 호주(0.93) 등	
	교사훈련	4.83	독일(1.58), 프랑스(0.92), 영국(0.85), 한국(0.76) 등	
	교육 연구	0.11	프랑스(0.04), 호주(0.03) 등	
	소계	30.49(5.8%)		
계		522.23 (10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5.01.15.)

세부분야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교육의 경우 벨기에, 뉴질랜드, 일본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과 베트남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지원 분야인 ‘장학금 지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을 식민지화했던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학생들의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독일’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고등교육 지원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분야’의 세부 분야들의 경우, 베트남에 교육 ODA를 주로 제공하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부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공여국이 베트남에 직접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독일이 추진한 ‘직업훈련 2008 프로그램(Vocational Training 2008)’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5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2010~14년 동안 기술협력과 무상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금속과 전기·전자 분야와 관련된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역량 강화, 효율적인 워크숍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ing 2012: 136).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LILAMA 2 직업교육훈련 중점센터(Centre of Excellenc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2008~14년 동안 LILAMA 2 중점센터가 국제 수준의 산업공학, 메가트로닉스, 전자/전기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훈련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베트남에 직업교육훈련 ODA를 많이 지원하는 ‘한국’도 1992년에 베트남과 수교한 이래 직업교육훈련 ODA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2011~13년간 지원된 사업은 ‘쌍치성 중급직업훈련원 개선사업’으로, 훈련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2~8).

중등이후교육 분야의 경우, 장학금을 제외하고 개별 사업으로 가

장 많이 교육 ODA를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2010~14년간 지원된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총 10백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기계공과, 자동차정비과, 전기공과, 전자공과, 정보통신과 등 5개 공과에서 3년 과정으로 총 81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지역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현장실습, 취업,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사무소 2012: 1~2). 이외에도 한국은 2011-12년간 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이러닝 시스템 구축, 기술 전수,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아세안 이러닝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를 토대로 2012~14년간 한국-CLMV 대학간 학점교류 및 이러닝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추진되었고, 2013년부터 아세안 사이버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ODA의 확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교육 ODA가 수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ASEAN 회원국 중에 2009~13년간 ODA 수원을 (40%)이 가장 높은 베트남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 및 산업 통계, 교육발전계획과 국가발전계획, 선행연구 및 베트남 현지 면담 결과(2013년 7월 16-19일)를 토대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의 우선순위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OECD CRS D/B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교육 ODA 지원 실적을 원조재원별, 원조유형별, 교육지원 분야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교육 ODA가 총량면에서는 베트남의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ODA 지원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 중 개별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성 ODA 중에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직업교육훈련’이 가장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개발협력 수요가 큰 ‘고등교육(베트남 내 대학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다자원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정한 교육목표(MDGs와 EFA)를 베트남이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유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띠는 (대학) 장학금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양자원조의 경우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는 ‘장학금(242.35백만 달러)’을 제외하고, 사업비성 교육 ODA 중에 직업교육훈련(116.95백만 달러), 기타 고등교육지원(78.75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지원되어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자원조 보다 ‘양자원조’가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도가 높은 이유는 국제기구들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는 반면에, 개별 공여국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서 베트남의 개발협력수요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자원조의 경우 베트남과 공여국간의 ‘역사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오랜 식민지배 역사를 가진 ‘프랑스’가 26.5%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개발협력을 통해서 1차 대전 발발이라는 역사적인 과오를 반성하고자 하는 독일(20.2%)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0년 이래 베트남과 역사

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16.3%), 베트남전에 30만명을 파병한 역사를 가진 한국(10.8%)도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육 ODA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개발 협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원조 효과성 원칙 중의 하나인 ‘ODA와 수원국 개발 전략 및 체제와의 일치(alignment)’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재는 통계 수치와 수원국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주로 ODA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통계 분석 및 면담 외에도 인구 동향, 산업발전 동향, 교육개혁 성과 및 국가발전계획, 선행연구 분석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면적 분석이 이루어질 때 특정 자료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개발 협력 수요에 대한 편향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지원 현황을 원조 재원별, 원조유형별, 교육분야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교육에 대한 다자원조와 양자원조간에 공여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있었고, 양자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간에도 베트남과의 역사적 관계에 따른 차이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 ODA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원국에 대한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의 지원 현황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교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 ODA가 지원될 때, 원조 효과성의 원칙 중의 하나인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harmonisation)’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조 조화는 최근에 ODA가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원리로서, 각 공여국이 개별 원조를 지원하기 보다는 공동 지원을 할 때 원조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원국의 개발협력수요와 ODA 공급간의 일치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ODA 지원간에 우선순위 면에서 전체적인 일치도는 높은 편이지만, 세부 분야면에서 일치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장 지원 비율이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베트남의 경우 자국내의 고등교육 인프라 확대 수요가 크지만, 이와 관련된 ODA의 68.6%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장학금이고, 베트남 내의 대학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는 31.4%만이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경우 기초교육의 등록률이 개선됨에 따라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수요도 커지만, 중등교육 ODA의 9.5%만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ODA 데이터를 치밀히 분석하여 미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추거나 타국의 사례를 무조건 따라가기 보다는 자국이 노하우와 강점을 가진 분야에 교육 ODA를 지원함으로써 원조 성과를 높여온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에 원조의 책무성 제고와 관련하여 강조되는 원조 효과성 원칙 중의 하나인 ‘성과중심 관리(Results)’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국이 노하우와 지식을 가진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 때 원조 성과관리도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여국들은 교육 ODA 측면에서 자국이 가진 강점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수원국에 접목시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국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이 교육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프랑스와의 역사적 관계’도 베트남의 교육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학벌주의’도 베트남이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 ODA 사업을 실행할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렵고 사업종료와 더불어 그 효과도 같이 종료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모든 ODA 사업에 필요하지만, 특히 국가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교육 ODA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 ODA 연구와 지역연구를 결합하는 다학제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과부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본격적 추진.” 보도자료 3월 21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국가협력전략 2011~2015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기태. 2003. “한국·베트남 수교이후 양국의 교육문화협력 실적.” 『베트남연구』 4: 1-20.
- 김종섭·박명호·이영섭·김종범·박선희·정재원·이은석·김희연.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철희·이영현·김상태·옥준필. 2011. 『베트남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서울: 교육

과학기술부.

- 박인원 · 강문서 · 정미경 · 김태형 · 신경림. 2010. 『한국의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명숙 · 채재은. 2014. “독일, 일본, 한국의 베트남 교육개발협력정책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4(1): 325-349.
- 유성상. 2007. 『베트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강우. 2014. “한국-베트남 대학교육협력모델 연구: 국내 대학교와 베트남 자매대학교와의 3+1, 2+2 공동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189-211.
- 이석희 · 이찬희 · 신호숙 · 박영진 · 이성준 · 이요한 · 정미경. 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국가별 교육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성준 · Chinh, L.Q. · Hiep N.V. · 강승원. 2009. 『한 · 베트남 중장기 교육협력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홍식 · 김형주. 2010. 『아세아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연식 · 배양수. 2012. “베트남 고등교육의 역사와 제도.” 『동남아시아연구』 22(3): 111-155.
- 정지원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KIEP 지역경제 포커스』 5(46): 1-12.
- 정창호. 2010. “OECD의 타이드 원조 규제가 우리나라 ODA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 전문기술포럼 ODA 연구회 주제발표 자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혜영. 2014.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지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ODA 정책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31: 193-231.

- 한국개발연구원. 2013. 『2013년도 KSP 지역별 세미나 출장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11. 『베트남 팜치성 중등직업훈련학교 개선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사무소. 2012. *Master Plan for
the Korea-Vietnam College of Technology in Bac Giang*. 천
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ADB. 2012.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Viet Nam (2012-2015)*.
_____. 2013. *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http://www.
adb.org/sites/default/files/projdocs/2013/46066-001-vie-pptar.
pdf](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docs/2013/46066-001-vie-pptar.pdf) (검색일: 2013.06.20).
- AusAID, CIDA, EU, DFID, French Emabssy,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Irish Aid, JICA, Netherlands Embassy, United
States Embassy, and World Bank Group. 2012.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12: Market Economy from a Middle-
Income Vietnam*. Vietnam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 Fredriksen, B. 2010. “Enhancing the Allocative Efficiency of
Education Aid: A Review of Issues and Op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13(2): 11-29.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GSO). 2010. *The 2009 Vietna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Major findings (Part II)*.
Hanoi: GSO.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 2012a. *Education and
Training Vietnam 2012*. MOET: Hanoi.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 2012b. *Vietnam EFA
Action Plan 2003-2015 Review and Update 2012*. MOET:
Hanoi.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0.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10*. MOET: Hanoi.
- Mok, K. H. 2008. "When Socialism Meets Market Capitalism: Challenges for Privatizing and Marketizing Education in China and Vietnam." *Policy Futures in Education*. 6(5): 601-615.
- MOSF and KDI. 2011. *Policy Recommend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Priority Areas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eoul: KDI.
- National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ing. 2012. *Viet Nam Vocational Training Report 2011*. Hanoi: National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ing.
- OECD. 2013. *Structural Policy Country Notes: Viet Nam*. Paris: OECD.
- _____ and LEED. 2012. *Skills Development Pathways in Asia*. Paris: OECD.
- Riddell, A. 2009. "Issues and Challenges Raised by Development Agencies in Implementing the New Modalities of Aid to Education." *Prospects* 38: 363-376.
-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New York: UNDP.
- UNIDO. 2013.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12/2013*. Vienna: UNIDO.
- United Nations. 20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1*.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Bank. 1994. *The East Asian Miracle: Four Lessons for Development Policy*. NBER Macroeconomics Annual. <http://www.nber.org/chapters/c11011.pdf> (검색일: 2014.08.

01).

_____. 201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eriod FY12-FY16*. Washington DC: World Bank.

인터넷 홈페이지

IRED. <http://ired.edu.vn/en/> (검색일: 2015.02.17)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 <http://en.moet.gov.vn>
(검색일: 2014.12.12)

OECD CRS D/B.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_SetCode=CRS1# (검색일: 2015.01.02.-2015.02.20)

WDI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3.09.25-2014.03.27)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 (검색일: 2013.10.01-2014.03.27)

(2015.02.24. 투고, 2015.04.29. 심사, 2015.05.04. 게재확정)

<국문초록>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채재은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ODA의 확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교육 ODA가 수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ASEAN 회원국 중에 2009~13년간 ODA 수원을 (40%)이 가장 높은 베트남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 및 산업 통계, 교육발전계획과 국가발전계획, 현지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의 우선순위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OECD CRS D/B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 지원 실적을 원조채원별, 원조유형별, 교육지원 분야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교육 ODA가 베트남의 모든 교육개발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ODA 지원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대한 교육 ODA(개별 장학금 제외) 중에 베트남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직업교육훈련’이 가장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요가 큰 ‘고등교육’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자원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정한 교육목표(MDGs와 EFA)를 베트남이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에 집중하고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띠는 ‘장학금’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양자원조의 경우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성 교육 ODA 중에 직업교

육훈련, 기타 고등교육지원 등의 순으로 많이 지원되어 베트남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자원조보다 ‘양자원조’가 베트남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일치도가 높은 이유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는 국제기구와 달리, 개별 공여국은 베트남 정부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서 베트남의 개발협력 수요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지원 현황을 원조 재원별, 원조유형별, 교육분야별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원국의 개발협력수요와 ODA 공급간의 일치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개발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베트남, 교육, ODA, 개발협력, 원조 효과성

<Abstract>

Vietnam Education and ODA

CHAE Jae Eun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education ODA is aligned with the need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Vietnam. Vietnam was chosen as a case of this study because it is ranked 1st among the ASEAN countries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ODA receiving from the OECD/DAC between 2009 and 2013. However, the HDI index ranking of Vietnam based on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was 121th. This implies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education of Vietnam. In this context,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as follow: 1) To what extent is the education ODA offered by the OECD/DAC aligned with the need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Vietnam? 2) To what extent is the multilateral ODA by international agencies aligned with the need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Vietnam? 3) To what extent is the bilateral ODA by countries aligned with the need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Vietnam? 4)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the multilateral ODA and the bilateral ODA?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although the total amount of

the education ODA offered by the OECD/DAC to Vietnam is unable to meet all the need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Vietnam, the education ODA to Vietnam is aligned with the needs in terms of priority. The 1st rank of the education ODA to Vietnam turns out to be the vocational training ODA, which is followed by the higher education ODA (except the scholarship ODA). These results are aligned with the educational needs of Vietnam which put its foremost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followed by higher education. While multilateral donors focus on basic education with an aim of helping Vietnam achieve the international educational goals related to both EFA and MDGs until 2015, bilateral donors focus on vocational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to help Vietnam realize its goals of becoming an industrialized country by 2020. These results reflect differences in funding resources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ODAs. The multilateral ODAs are likely to focus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goals since they receive the funding from various countries, and also have mission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international goals set up by their member countries. In contrast, bilateral ODAs are funded by individual donors, and thu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Key words: Vietnam, Education, ODA,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id Effectiveness